



“민중이 개·돼지면 그는 기생충·진딧물”

조정래 작가가 12일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꽃피고 꽃이다' 간담회에서 최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

조정래, 교육 소설 '꽃피고 꽃이다' 출간 간담회에서 비판

교육 문제를 다룬 신작 소설로 돌아온 작가 조정래(73)가 최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013년 베스트셀러 '정글만리'(해냄) 이후 3년 만에 펴낸 신작이 공교롭게도 교육문제를 주제로 다룬 것이어서 최근 나 전 정책기획관의 망언과 맞물려 이목을 끌었다. 특히 교육부가 12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래 작가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작 '꽃피고 꽃이다' 출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99%가 개·돼지 새끼들이라면 개·돼지가 낸 세금 받아먹고 살아온 그는 누구인가. 그는 개·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옛날에 양반들이 백성 위에 군림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난이 오면 근대도 안 갔다. 그것이 바로 양반의 실제

“민중이 낸 세금으로 기생한 집권층은 민중 위해 뭘 했나 작금의 문제 잘못된 교육 탓”

다. 조선이 멸망한 것은 그 때문"이라며 "그런 신분제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이가 모든 교육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핵심부서의 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다. 조선이 멸망한 것은 그 때문"이라며 "그런 신분제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이가 모든 교육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핵심부서의 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생했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렇듯 작가의 역사인식은 나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명백히 배치된다.

작가가 이렇게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작금의 많은 문제가 교육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 작가는 "이것은 한 사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사회가 그렇고 나 정책기획관이 승진하면서 올라온 세월 동안의 교육부 분위기가 그랬을 것이다. 당사자를 파면시켜야 하고 그를 요직에 앉힌 장관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시장에 연간 4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경제가 나빠지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사교육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작가로서 이 부분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소설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작가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3년에 걸쳐 자료조사와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찾아다녔다. 뿐만 아니라 사교

육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관련 종사자들을 취재했다. "작가는 발로 쓴다"는 명제를 뒷받침할 만큼 철저한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두 권 분량의 소설이 완성된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웃들이다. 무너진 공교육 체제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교사 강교민, 삶의 목표가 고교생 아들의 대학 진학뿐인 전업주부 김희경, 엄마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지원 등 모두 교육문제를 연관돼 있다. 동시대를 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꽃피고 꽃이다"라는 제목이 상징하듯 작가는 우리 모두가 꽃피도록 태어나 그 빛을 발하고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당위를 역설한다. 길가의 잡풀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작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마이스터 학교를 만들어 사회인으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내·외 파장 고려한 선택

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
군사적 효용성
공군기지 있는 고지대 적합
군사분계선 250km 거리
북 방사포 위협서도 안전



중국 반발 최소화
레이더 최적거리 600~800km
산둥반도 끝·북중 접경지 등
레이더 탐지 범위 줄여 들어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로 사실상 결정단계에 들어간 것은 군사적 효용성뿐 아니라 국내외 파장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설 경기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의 상당한 넓은 지역까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지역방어시스템인 사드는 전방 200여 km 반경의 영역을 방어한다. 평택이 성주에서 북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평택 전 지역이 사드 방어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의 남쪽 경계선은 성주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km 떨어져 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 남쪽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기지를 위해 국가가 마이스터 학교를 만들어 사회인으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는 후방으로는 약 100여km 반경의 영역을 방어할 수 있다. 성주와 부산의 북쪽 경계선이 약 100km 떨어져 있을 경우를 감안하면, 남부 지역의 상당한 부분도 사드로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성주가 북한의 화력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는 점도 군사적으로 유리한 부분이다. 성주와 가장 가까운 군사분계

선(MDL) 지점의 직선거리도 약 250km에 달한다.

북한이 올해 말 실제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mm 신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그치기 때문에 북한은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에 화력 공격을 할 수 없게 된다.

성주에 우리 공군의 방공기지가 있다는 점도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는 요소다. 성주의 방공기지는 성산포대는 해발 약 400m의 고지대에 있어 사드를 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성주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데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외교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최적 거리가 600~800km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중국 지역은 산둥 반도의 키토머리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탐지 범위에 포함된다.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중국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중국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최적으로 성주가 선택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전남 '갈색날개매미충' 확산...산림·과수 큰 피해

10개 시·군 379ha서 발견

과일나무, 조경수 등에 기생하면서 가지 고사, 그을음 발생 등의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전남도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구례에서 첫 발생한 이후 올해 보성, 장흥 등 10개 시·군으로 번졌으며, 성충 발견시기도 7월 중순에서 10일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분석이다.

12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과거 야산 일부 등 국부적으로 발생했던 갈색날개매미충이 도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제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8개 시·군 17개 읍·면 379ha에서 발견됐으나 올해는 10개 시·군 20개 읍·면에서 관찰되고 있다. 실

제 현장조사에서 나처럼 더 많은 시·군에 번져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원은 추정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 복숭아, 감, 참다래, 산수유, 밤 등 나무와 초본류 60여종에 기생하면서 양분을 빨아먹고 알을 산란하며 가지와 고사시키거나 그을음 발생으로 과일의 상품성을 하락시키는 유해곤충이다.

농업기술원측은 매미충 알이 붙어 있는 조경수 목표이나 성충이 차량에 붙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덕수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발생밀도를 줄이기 위해 방제방법을 개발해 지난 3월 구례군에서 현장 실증을 가졌다"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유인 포획, 기피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6년만에...英 여성총리 메이 오늘 취임



테리사 메이(59) 내무장관이 13일 데이비드 캐머런의 뒤를 이어 영국 총리에 오른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두번째 여성 총리가 배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새 총리 아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투표 이후 약 3주일 만이다. 이는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의 결선에 오른 후보 중 한 명인 앤드리아 레드섬(53) 에너지차관이 11일(현지시간) "강력한 총리가 당장 임명되는 게 국익"이라며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캐머런 총리는 레드섬 후보의 경선포기 선언 직후 "오늘은 13일 저녁 새 총리를 맞게 될 것"이라며 메이의 차기 총리 취임을 확인했다. 경선 일정을 정한 보수당 원로그룹 '1922 위원회' 그래엄 브래드 위원장은 위원회가 메이의 대표 지명에 동의했다면서 메이가 "즉각적인 발효와 함께" 대표로 선출됐음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화재단장 후보 2명 압축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후보가 2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전문인기제 가급) 서류·면접 전형을 거친 결과, 최종 후보가 2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의 명단을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문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장관이 적격자를 선임한다. 문화전당장 임기는 3년이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오늘 개원식

광주전남연구원이 13일 오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임시통합청사 입주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입주시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임명규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명망인사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성수 원장은 "지역의 기대로 지난해 9월 통합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광주전남의 정책적 해안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며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으로 상생발전 연구에 추진동력을 장착한 만큼 연구역량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사람찾음

성명: 박영욱(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정비와 열은 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진학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